

방미통신진흥원 통합법인 신설 속도

법사위 통과… 본회의 의결 남아
KOBACO 등 유관기관 통·폐합
부처 협조·고용 승계 등 ‘난항’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을 4개월 앞두고 통합 법인 신설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피통합 기관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도 백지 상태여서 실제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방미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인 신설은 흠어진 방송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미통위 소속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및 시청자미디어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의 방송·미디어 업무를 통·폐합하는 게 골자다. 예상 조직 구성원 수는 약 900명으로, 지난해 해당 기관 예산 총액만 놓고 보면 약 1400억원 규모다. 법인 설립 시점은 내년 1월이다.

앞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방미통위가 인터넷TV(IPTV)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권과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 등 방송·미디어 주요 업무를 맡게 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사업의 상당수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에서 분산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사업 집행까지 방미통신진흥원이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설 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은 과기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의 5개 유관 기관의 일부 인력을 방미통신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이관 범위는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부처의 협조와 고용 승계가 문제다. 최근 유관 기관들은 정책적 혼선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며,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협력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산하기관의 업무 이관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통합의 중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위원회의 근로 조건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언론노조 코바코지부는 성명을 통

해 “재원 확보와 인사제도 통합 등이 전무한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진흥원 설립에 투입되는 제반 비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코바코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시청자미디어위원회 대비 3000만원을 훌쩍 넘는 임금 격차로 양 기관 사이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설 법인이 뚜렷한 자체 수익 모델 없이 외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결국 인건비와 기관 유지비 충당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방미통위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 개편을 시도했었다. 2008년 당시 방통위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현 KISA) 등 정보보호 전문 기관을 방송통신진흥 조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KISA 노조의 정보보호 고도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갈등을 겪었으며, 이듬해 3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간판을 바꿔 달며 논란을 매듭지었다.

올해 초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 배경으로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심화를 꼽았다.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방안으로 “규제 합리화와 유료방송 진흥전략 마련 등을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고객 문화 축제 ‘KT 보야지 페스티벌’

10주년 맞아 지역 축제로 확대
장기고객 등 총 9000명 초청

KT가 장기고객들을 위한 멤버십 문화 행사를 지역 축제로 확대한다. KT는 고객 문화 축제 ‘KT 보야지 페스티벌’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보야지(함해 또는 여행이라는 의미) 페스티벌은 KT가 2015년부터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년 간 약 30만 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고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 장소 등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특히 행사명을 ‘KT 보야지 투 자라섬’은 ‘KT 보야지 페스티벌’로 바꾸고, 지역과 고객이 만나는 문화 축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 초청 방식도 선착순 예매에서 응모 후 추첨 방식으로 전환한다. 응모는 이

달 22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0월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KT홈페이지 및 마이케이티 앱에서 KT멤버십 또는 장기 고객, Y고객(만19세~34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청 규모는 총 9000명이다.

이번 행사에는 god, 헤이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가수 공연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마련했다. 보야지 페스티벌과 함께 10주년을 맞은 Y 브랜드의 생일 축하 콘셉트의 부스도 선보인다. 또한 장기고객 초대 혜택과 KT 상품 체험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행사는 오는 10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에서 열린다.

KT 홍보실장 김동훈 전무는 “KT 보야지 페스티벌은 지난 10년간 고객들의 참여와 사랑으로 이어져 온 KT의 대표 고객 문화 축제”라며 “1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은 고객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지난 19일 경주에서 열린 ‘무도런’에서 SK텔레콤 ‘런메이트 부스’를 찾은 러너 고객들이 줄서 있다. /SK텔레콤

SKT, 러너 고객 대상 시리즈 행사 진행

‘런메이트’ 브랜드 강화

SK텔레콤이 러너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리즈 행사를 이어간다.

SK텔레콤은 가을 러닝 행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런메이트와 함께 나만의 러닝에 도전하자’ 시리즈 행사를 진행한다. 첫번째 프로그램 ‘러닝템 미리 준비하기’를 통해 가민런코리아 러닝 행사 초대권을 총 250명에게 제공한다. 접수는 오는 11일까지로, 런메이트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고객들은 10km와 하프 코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에 더해 스마트기기 할부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이용 고객 250

명을 별도 추천한다. 이 가운데 20여명을 추가 선정해 아디다스 러닝화(아디제로 EVO SL)를 증정한다. 대상 고객 요금제는 베스트 맥스·프로·109 등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지난 19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2026 무한도전 런 인 경주(이하 무도런)에서 런메이트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 러너들의 레이스 완주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SNS 인증 행사를 진행하고, 무도런 메달 뒷면에 완주 기록을 각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전자 러닝 디바이스 체험존을 마련했다. 행사 당일 부스에는 34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다.

/조민선 기자

통신3사, 추석 연휴 실시간 관제 총력

KT, 23일부터 네트워크 집중 관리
SKT, AI 활용 NMC 운영 효율 강화
LG U+,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총 3175억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동통신3사가 트래픽 집중에 대비해 24시간 실시간 관제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를 사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 맞춰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중소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미리 지급해 상생 경영을 실천한다.

◆ 연휴 기간 실시간 관제센터 가동… 영상통화도 무료

KT는 오는 23일부터 ‘네트워크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고속도로와 KTX·SRT 철도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 거점에 대한 통신 품질을 실시한다. 앞서 기지국 용량 최적화 작업도 완료했다.

연휴 기간에는 주요 휴양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밀집하는 지역의 5G·LTE 기지국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명절 선물을 사정한 스미싱 문자 유포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 관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통신공사, 통신주 등을 미리 점검하고, 전력 공급이 차단될 것을 대비해 이동형 발전 차량과 휴대용 발전기 등 긴급 전력 장비를 전국 주요 거점에 배치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해 네트워크 관제센터(NMC)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약 3600명으로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휴먼서비스 등 관계사와 운용·유지보수 협력사가 함께 한다.

자체 개발한 무선망 AI 운용 시스템 ‘에이원’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 트래픽과 장비 상태를 실시간 분석한다. 코어망 AI 통합관제 시스템 ‘스파이더’는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추석 당일(25일)에 예상 데이터 사용량이 최대 10% 가량 증가하고, 국제 로밍 이용자는 평소 대비 최대 25%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트래픽 밀집 지역인 고속도로, 성묘지, 관광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하며, 티맵과 에이닷 등 주요 서비스는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연휴 기간 서울 마곡사육에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앞서 고속도로와 휴게소, 고속철도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기지국의 사전 점검과 품질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또 AI 기반 자율 운영 네트워크 플랫폼인 ‘에이아이온’을 활용해 실시간 트래픽 변화에 대응한다.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상습 정체 구간 등에는 현장 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유플러스tv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이용 증가에 대비해 캐시서버 용량을 증설했다.

통신3사는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영상 통화를 무료 제공한다. 단 카카오톡과 페이스타임 등은 제외된다.

◆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총 3175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KT는 주요 그룹관계사들 함께 중소 협력사에 납품대금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함께 네트워크 공사와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을 맡은 200여개 협력사와 250여개 유통망에 131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LG유플러스도 250억원의 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한다. 당초 지급 예정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 오는 23일 일괄 지원한다. 대상은 무선 중계기·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소 협력사다.

통신3사는 중소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KT는 최우수 협력사에 무이자대출을 제공하는 ‘동반성장펀드’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제도를 통해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전액 현금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약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조민선 기자

람을 마친 후에는 고객들을 위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했다. 추첨 행사를 통해 당첨 고객에게는 뮤지컬 주연 배우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고객들은 공연과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이나 지인과 추억을 쌓았다.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뮤지컬 관람은 물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장기 이용 고객으로서 차별화된 혜택을 받았다고 느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가 연중 운영하는 ‘장기고객 초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뮤지컬 ‘템파카’ 관람을 시작으로 화남송 초청 행사, 레고랜드 런, 레고랜드 워터풀 파티 등 장기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조민선 기자